

## 2010년, 민주화운동을 다시 생각한다 :

# ‘역사로서의 민주주의’에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로

글 · 정해구 hgjung@skhu.ac.kr

2010년 올해로서 1960년에 발생했던 4·19혁명은 50주년, 1980년에 발생했던 5·18민중항쟁은 30주년이 된다. 5·18민중항쟁 이후 30년이 지나고 4·19혁명 이후 50년이 지나는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이 사건들은 더 이상 현재의 사건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과거가 되었거나 과거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4·19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의 민주주의는 5·18민중항쟁을 거쳐 마침내는 1987년 6월민주항쟁에 따른 민주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현재를 거쳐 앞으로 미래를 향해 흐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4·19혁명과 5·18민중항쟁은 현재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미래의 민주주의로도 연결될 ‘민주주의의 원천(源泉)’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 4·19혁명과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그 의미들

그렇다면 4·19혁명과 5·18민중항쟁과 그 의미는 어떻게 기억될 수 있나? 우선 1960년에 발생한 4·19혁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것이 그 시기에 발생했기에 당연히 발생할 일이 발생한 것으로 무심결에 간주한다. 그러나 새삼 생각해보면 일제의 식민

지에서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한지 15년 만에, 그리고 분단과 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겪은 지 10년 안팎의 시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도전에 의해 이승만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4·19혁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이채로운 일이다.

더구나 4·19혁명 당시 이를 주도할만한 강력한 사회 계층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 분단과 전쟁의 경험을 거치면서 강력한 반공국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분쇄되고 억압되고 따라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비롯한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의 민주혁명을 성공시킨 한국의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도 민주혁명을 주도할 사회 계층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타의 신생 독립국에 비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4·19혁명에 의해 등장한 민주당 정부는 곧이어 발생한 5·16쿠데타에 의해 전복되었다. 그렇지만 이후 민주화운동의 전개가 보여주듯, 4·19혁명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한편 4·19혁명으로부터 20년이 흐른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민중항쟁이 발생했다. 신군부세력의 유혈 진압에 맞서 광주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전개되었던 5·18민중항쟁의 경험 역시 그 유례를 쉽게 찾기 힘든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이었다. 뿐만 아니라 5·18항쟁은 당시 광주의 거의 전 시민이 동참했

던, 말 그대로 매우 민중적인 항쟁이었다.

물론 5·18민중항쟁은 당시에 실패했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은 그 자체로서 신군부세력에 의한 쿠데타의 부당성을 입증했고 신군부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군부세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마냥 짓밟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또한 그 공포를 넘어 분연히 떨쳐 일어설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민주화운동에 강력한 정신과 동력을 제공해주었다.



1960년 4·19 혁명당시 시위대

## 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압축성장을 할 수 있었나?

4·19혁명과 5·18민중항쟁에 대한 이와 같은 기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준다. 왜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교적 단 기간 내에 빨리 그리고 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민주주의의 출발이 매우 앞섰던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 이외에 뒤늦게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서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단기간 내에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발전했던 나라를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4·19혁명과 5·18민중항쟁의 경험이 이후 민주화운동의 강력한 원천으로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4·19혁명과 5·18민중항쟁의 경험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화운동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그것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과 정신을 제공했다. 즉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서 시작되었던 4·19혁명은 한국 민주주의가 적어도 정당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5·18민중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적어도 인간 존엄성의 가치와 정신 위에 세워져야 함을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4·19혁명과 5·18민중항쟁의 경험은 그 경험을 통해 민주화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자극과 동력을 제공했다. 특히 5·18민중항쟁의 경험은 이후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강화시키는 정신적 바탕을 제공함으로써 1987년 6월민주항쟁의 성공을 가능케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한 1987년 6월민주항쟁은 마침내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행 당시 민주화운동세력이 집권에 실패하고 과거 독재세력의 후계세력인 노태우정권이 들어섬으로써 한국의 민주화는 많은 문제점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의 민주화가 한국의 민주주의로 하여금 권위



1980년 5월 16일 광주 전남도청 앞의 촛불대행진

주의체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궤도 위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발전: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천

1987년 민주화 이후 이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물론 민주주의 '역진' 이니 '후퇴' 니 하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역사를 원천적으로 되돌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 지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은 이제 역진 불가능한 정도에는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역진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자주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잊는다. 특히 과거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갖지 못한 젊은 세대들의 경우 그것은 더욱 그렇다. 그 한 사례로서, 민주화 이후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바로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 점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이제 쟁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는 쉽게 잊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은 항쟁이나 혁명과 같은 거대한 사건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닌 만큼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잊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혁명이나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민주주의 실천을 제도화시키고 문화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과거 4·19혁명과 5·18민중항쟁을 통해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후대에게 계승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글 정해구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